

해방 전 교지 소재(所載) 서구 번역시의 특징 고찰

정 경 은

(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USA)

1. 들어가면서

해방 전 근대 교육이 이루어진 대부분의 고등보통학교와 전문학교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장려하였는데 이 활동에는 교지 발간도 포함되었다. 교지는 1년 1회 혹은 2회씩 발행되었으며 내용은 교수와 학생 혹은 저명한 철학자의 논문·번역물·번역문학, 교수와 학생 그리고 기성 문인들이 창작한 시·소설·희곡·수필·평론·콩트 등의 문학 작품, 시사적 주제의 특집 글, 광고·사진·만화 등으로 이루어져 기성 문단의 잡지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차이는 주된 필자와 독자가 당시 전체 인구의 5%도 되지 않았던 학생들, 즉 십대 후반에서 이십대 후반까지의 청년들이라는데 있었다. 그들은 세계와 조선의 상황, 문학과 철학, 사랑과 우정, 취업과 실업문제, 외국 유학 등에 대한 관심을 교지를 통해 표출하였다.

기존 문학사에서 학생들이 발간한 잡지, 즉 교지는 주목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 해방 전 학생들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의의

를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서 본고는 특히 해방 전 교지에 실린 서구 번역시에 주목하였다.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기에 외국문학이 끼친 영향은 ‘수용과 영향에 관한 연구’와 ‘번역이론에 관한 연구’로 대별되며 주로 기성문인을 중심으로 대상 국가와 수용자 간의 비교문학적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학생들의 번역에 대한 고찰은 미미해 보인다. 당시 학생 번역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학생 청년들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는 18세기부터 서구의 근대사상과 문학이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고 1921년 김억의 최초 번역시집 『오뇌의 무도』가 발간된 이후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하여 외국문학 소개가 이루어졌고, 지식인들은 외국의 계몽사상을 번역하고 소개하면서 조선의 계몽과 민족 개조를 중용하는 글을 투고하였다.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외국 문학을 번역하거나 번역이론에 관한 논의들을 활발하게 펼쳤다. 중앙고보의 이명섭은 당시 번역문고판인 『태서6호』 문고를 한 권 한 권 요약하고 나서, 번역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한다.

과거의 다소 경험에 감영하여 외국 고유명사 등은 특히 오식이 많다. 어떤 것은 뒤죽박죽이 되어 켄둥이 켄둥이가 되고(중략) 본문의 외국 명사는 철자로나 자획으로나 필자의 치밀히 丹誠한 바나 이 또한 어느 정도까지 定植일지 의문이다. 대체 우리의 언론 종사자는 朦朧함과 방만함이 특징이다. (중략) 적어도 일본어 만치나 V=ヴ B=ブ F=フ P=ペ D=ド T=ト G=ガ K=カ 등을 분변하면 다행이겠다. 필자는 원명의 구명을 필요성으로 하여 본문에는 원명을 각 본국의 문자로 표시하였다.(62)

위의 글에서 학생들이 기성문단에서 발행된 번역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는 것과 번역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초기 번역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이명섭은 조선 번역자들이 외국 고유 명사를 발음대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P’와 ‘F’, ‘V’와 ‘B’ 등을 일본어만큼도 분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자신은 각국의 문자 그대로 표기했음을 밝힌다.

번역과정에서 당시 시대상과 학생들의 사상이 같이 번역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주로 시가¹⁾, 전문학교 이상에서는 주로 소설이 번

역되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외국어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철학과 소설 등 산문 번역이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20대 청년들의 관심이 서정적인 시보다는 철학과 소설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서 당시 시대상, 즉 시보다는 소설이 사회 상황을 표현하기 적합한 장르라는 인식에 학생들이 편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는 경무국 발표 자료에 의하면 1926년 사상 단체는 330개, 기타 운동단체가 1000개를 헤아릴 정도로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응전력이 생겼다. 따라서 지식인들에게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관심이 주제로 떠올랐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 설정이 가능할 때 비로소 현실을 완결된 행위로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김윤식 163) 이른바 소설의 시대를 이룰 여건이 충족되었던 것이다. 예로 든다면 경성제국대학에서 발간한 『신홍』에는 시가 한 편도 번역 되지 않았으며 철학에 관한 소논문²⁾과 소설 또는 극본³⁾이 주를 이룬다. 번역된 소설은 대부분이 사회주의 계열의 소설이었으며 역자는 작품이나 작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이것은 미국에 유일한 프로레타리아 문학잡지 Michel Gold가 주재하는 New Masses 사월호에서 번역한 것이다.(리종수 119)
나는 氏를 미국프로레타리아 작가로 소설가로 소개하고자 하거니와 그가 최근에 미국 프로레타리아 시인으로 대활약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 1) 대상 텍스트 가운데 교보에서 번역된 소설은 『배재』5호(배재학생기독청년회, 1924, 3)의 최상옥이 롱펠로우의 작품을 초역한 「옛센의 하야공(鍛冶工)」과, 『계우』10호(중앙 고등보통학교동창회, 1931, 9)의 MSR이 번역한 모파상의 작품 「월광」 두 편이었다.
- 2) 『신홍』1호의 「Nietzsche 차라투스트라」, 『신홍』4호의 「헤겔 현상학中的개체의식사회의식의 범형(範型)」, 『신홍』5호의 「철학적 우주관」, 『신홍』7호의 「유물론적견해와 관념론적견해의 대립」과 「易傳中的 변증법적관념의전개」과 「사회주의하의인간정신」, 『신홍』9호의 「인간정신(其二)」과 「지-드의 사회비판: 개인과 사회」 같은 사회주의 혹은 철학에 관한 글들이 번역되었다.
- 3) 『신홍』1호의 「삿틀러嬢과그의冊床」(번역소설, Edwin Seaver작, 兪鎮午 譯), 『신홍』2호의 「돈춤벌자면안악이난봉(一):Ariadne, Business First」(번역극본, A.A.Milne작), 『신홍』3호의 「紀元後뵘너스」(번역소설, 루 킵링 작, 曉哲 譯), 『신홍』5호의 「일사자리잇소」(번역소설, 크루덴 작, 리종수 역), 『신홍』6호의 「실업자의안해」 번역 소설, 크루덴 작, 리종수 역, 『신홍』6호의 「田漢江村小景」(번역극본 崔昌圭 譯), 『신홍』8호의 「어머니와 아들」(단편소설, 랭스톤 휴즈 작, 李鍾洙 譯)

(李種洙 141)

위의 정보에 의하면 이종수는 1931년과 1935년에 걸쳐 두 편의 소설을 번역하는데 주된 소재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잡지였다. 학생들이 프롤레타리아 이념을 표방하는 미국의 사회주의 잡지를 즐겨 보았음을 알 수 있는데 『신흥』의 구성을 보면 필자들은 사회주의에 경도⁴⁾되어 있었고 번역된 글들도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대상 텍스트는 대부분 소실되어 몇 권 남지 않았으며, 남아 있는 번역시의 목록은 <부록>과 같다. 순서는 발행기관(학교별)으로 구분 하였으며 번역된 총 44편의 제목·원작자·역자는 원서의 표기와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번역시가 한 편도 없는 경우도 분석을 위해서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어떠한 외국 문학에 관심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부록>의 자료는 앞으로 연구될 번역대상 및 번역시에 대한 지리(地理) 제시로서의 의미를 매기고자 하였다. 남아있는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충의 윤곽은 비슷한 결과일 것이라 생각한다. 번역자들은 교사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학생 번역문학의 특성을 고찰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한다.

2. 학생 번역시의 특징

2.1 제도와 학생 번역의 관계

학생들의 외국시에 대한 관심과 번역은 교사와 제도에 의해 추동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번역시가 한 편도 없는 경우와 꾸준한 번역이 이루어진 학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각 학교의 외국어 관련 교사들의 성향이나 외국시와 관련 있는 교과목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유물사관단장」(『신흥』1호), 「경제적 동맹파업의 임무」(『신흥』5호), 「추상과 유물변증법」(『신흥』6호), 「조선 프롤레타리아 연극의 전조」(『신흥』6호), 「자본주의 제국의 노동자 상태」(『신흥』7호) 등.

2.1.1 학교 제도의 영향, 『일광』의 경우

한 권 내지 두 권만 남아 있는 교지를 제외하고 꾸준히 발간된 교지들을 중심으로 <부록>을 검토하면, 번역시가 한 편도 없는 교지는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우회에서 발간한 『일광』과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들이 발간한 『신흥』이다. 『신흥』은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일광』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동국대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의 학생회에서는 『룸비니』를, 교우회에서는 『일광』을 발간하였는데 『일광』3호에 ‘소-르스와지’의 소설 「화상(花商)과 그 남편」 한 편이 번역되었을 뿐 번역시는 없었다. 소설의 내용은 가난한 주인공과 부자의 엄청난 생활 차이, 남편의 연애행각 등 불교 사상과는 연관이 없어 보인다. 학생회에서 발간한 『룸비니』 역시 번역시나 번역문학을 신지 않았다. <부록>에 의하면 당시 학생들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시를 가장 많이 번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광』에는 타고르의 시조차 번역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일광』에 외국작품의 번역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 동양사상을 중심으로 한 불교학교라는데 한 원인이 있어 보인다. 『일광』에 외국과 관계된 글은 1호에서 10호까지 조선과 서양의 종교나 철학을 비교하는 것이 대부분⁵⁾ 이지만 3호 이후는 이와 같은 성격의 글조차 발견되지 않는다.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 번역문학의 빈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조선문학에 관한 글들도 현대문학이 아닌 삼국시대나 조선시대에 한정⁶⁾되어 있었다. 신문학이나 신시 같은 장르가 생성되고 있었던 당시 문화사적 조류와는 상관없이 종교에 바탕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수과목에서 한 원인을 찾아보면, 문학과목이 1학년은 문학개론, 2학년은 조선문학사, 3학년은 조선문학 강독⁷⁾이 있었지만 대개 불교과목에 치중되

- 5) 『일광』1호의 「세계의 종교를 논하여 불전의 사명에 及함」, 「양악과 조선악에 對한 所感」, 『일광』2호의 「세계기시론」, 『일광』3호의 「플라톤의 『이데아』와 불교의 열반 사상」, 「동서철학 일별」 등.
- 6) 『일광』3호의 「삼국문학 약년표」, 『일광』6호의 「설음한자에 對하여: 佛리를 보레라고 읽는 것이 조선한문독법으로는 옳타」, 「매월당에 對한 소고」, 『일광』7호의 「이조시대 불교제가곡과 명칭가곡의 관계」 등.
- 7) 『일광』5호, 1935, 1, 40쪽.

어 있었다. 학생들도 이를 문제 삼고 있었다는 것이 다음과 같은 글에서 드러난다.

중앙불전도 넘어 불교치중주의에 치우친다는 원성이 높흔지라 불교과 문학과 이리 분과를 하야보려는 계획이 있다하니 이것이 어서 실현된다면 얼마나 조흔 일인가 편잡자는 교우와 한 가지 추수하는 바이다.(영석 71)

중앙불전 학생들이 문과, 즉 문학에 대한 열망이 있었음에도 다양한 문학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학에 관심을 가질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더욱 외국문학에 대한 관심까지 이어질 수도 없었다.

셋째, 교사의 역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앙불전에는 영어수업⁸⁾이 있었음에도 외국인 교사가 하나도 없었으며, 한국인 영어교사도 번역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불전에서 영어를 담당한 교사는 경성제대 영문과를 졸업한 정준모(鄭駿謨)로서 『일광』4호에서 10호까지 교사명단에 올라 있으며, 다음의 글에서는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시를 언급하기도 한다.

건넌 편 산 기슭을 끼고 잔잔하게 흐르는 맑은 시내수가 넓은 벌판에 빨가게 익은 林檎들! 풍만한 미각의 자극도 조커니와 초록치마 저고리에 빨간 젓가슴을 드러내고 물빛 허리를 산기슭에 늘어뜬 성녀가 나닌가 함에, 라파엘의 그린 성화인가? 로셀티의 옅은 성녀인가.(정준모 23)

위의 수필과 『일광』6호에 ‘준모’라는 필명으로 시를 실는데서 정준모가 문학창작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번역에 관한 글을 썼다는 기록도 번역문도 발견되지 않는다. 본인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번역을 장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앙불전에는 시인 최남선⁹⁾도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는 ‘조선문학강독’ 시간을 담당하였으며 교지에는 주로 시조¹⁰⁾를 실었다. 1910년대까지 최남선의 활

8) 영어수업은 1학년이 ‘영어강독及영문법’, 2·3학년이 ‘영어강독’이 있었다.

9) 『일광』2호, 4호, 5호, 7호까지는 현직원 명단에 속해 있다가 8호 이후로는 퇴직하여 구직원 명단에 올라왔다.

10) 『일광』3호에는 「삼국문학약년표」라는 순한문으로 된 문학에 관한 글을, 『일광』6호

동은 조선 전통의 고전 텍스트와 그가 입수했던 새로운 동서양의 텍스트들을 번역, 출판하는 것에 집중(부산대학교 인문 한국 고전 207)되어 있었고, 『소년』지에 20차례에 걸쳐 시·소설·우화 등을 번역하여 실었고, 특히 테니슨의 「제석(除夕)」, 바이런의 「해적가」와 「대양」(김육동 49) 같은 외국시를 번역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번역활동에 열심이었던 최남선이 교사로 있었음에도 『일광』에 서구 번역시가 한 편도 없다는 것이 의외인데, 이는 1930년대 중반 문학에 대한 그의 태도 변화로 해석된다. 최남선은 1925년을 전후하여 단군정신을 강조하며 시조집 『백팔번뇌』(1926,12)를 출간하고 다음과 같이 동양사상을 강조한다.

시조를 내세우는 것이 반드시 큰 일, 끔찍한 일은 아니겠지마는, 이만큼 제 정신을 차린 것, 제 본질을 검토하게 된 것, 근저 있는 자기로부터 튼튼히 출발하겠다 하는 것 만은 미상불 주의할일, 탄상할일, 탐탐히 생각할일이 아닌 것이다.(최남선 386)

최남선은 시조가 본질이며 근저라는 의식을 표출하고 『일광』3호에 「삼국문학 약년(略年)표」라는 글을 쓰기도 하고 6호와 7호에 시조를 각각 한 편씩 실는다. 이처럼 1930년대는 주로 고전문학을 번역하는데 집중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서구시 번역을 장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 휘문고보의 경우는 외국인 교사가 한 명도 없지만 영어교사가 번역에 관심을 가졌고 장려한 결과 학생들의 번역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외국인 교사가 없더라도 한국인 교사가 외국시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학생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2.1.2 한국인 교사의 영향, 『휘문』의 경우

휘문고등보통학교의 교지 『휘문』에는 적지 않은 번역시들이 실려 있는데 휘문고보에서 영어교사는 박술음 외에도 3명(『휘문』2호 126)이 있었고 외국인 교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휘문고보는 학교 차원에서도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영어 웅변대회에 대한 기록에서도

에는 시조 「문수산성」, 『일광』7호에는 시조 「삼랑성」을 실었다.

볼 수 있다.

연희전문학교 주최로 전조선 남녀 중등학교 영어웅변대회¹¹⁾가 개최됨으로 그것을 기회로 박술음 선생의 진력으로 제2회 교내 영어웅변대회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그것 역시 사정으로 5학년뿐이 출연하였다. (중략) The white bare and the Crocodile라는 연제로 5갑 윤희병군이 휘문대표로 출연하였다.(이중호 103)

연희전문에서 개최하는 영어 웅변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휘문고보 자체에서도 영어 웅변대회가 열렸고 박술음 선생이 진력을 다해 장려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휘문의 이기인은 스티븐슨(R.L.Stevenson)의 시 「My Bed is a Boat」를 번역하였는데, 원문과 번역문 그리고 주석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연 앞에 (1) (2) (3)과 같은 번호를 붙이는 식으로 배열하였다. 당시 기성 문인들도 서구 문학의 소개차원에서 시와 소설에 주석을 붙였는데 학생들도 같은 양식을 따르고 있었다.

(1) My bed is like a little boat; Nurse helps me in when I embark; She girds me in my sailor's coat And starts me in the dark
(譯) 나의 침대는 조고만 배(舟)와 갓하요 / 내가 배를 탈 때 | 면은 / 젓엄마(乳母)가 부축해주어요 / 사공의옷으로 가라입혀서 / 어두운속으로 썩나 보네요
(註) 어린아가 잘 때에 유모나 어머니가 옷빚구어 입혀서 어두운 침상에서 잠재우는것을 배타고 썩나간다고 비유한 것이다.(이기인 56)

위의 인용 부분은 시의 1연으로서 번역자는 주(註)에서 ‘배’는 아이의 침대이며, ‘사공의 옷’은 어린 아이가 잘 때 유모나 어머니가 입혀주는 잠옷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각 연의 번호를 붙이거나 주를 다는 방식에서 영어수업식의 번

11) 휘문고보 뿐 아니라 중앙고보에서도 “소화 8년 11월 18일 연전주최 영어웅변대회에 이성범 군이 출연하여 3등상에 입선”(『계우』14호 109)과 같은 영어 웅변대회에 참석했다는 기록 등에서 근대 조선 학교의 영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측정 할 수 있다.

역형태를 볼 수 있다. 수사에 있어서도 시의 화자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해요’와 같은 경어체로, 번역자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주 부분은 ‘-한다’와 같은 평상체로 번역하는 섬세함을 보인다.

이 시가 실린 『회문』4호의 목차는 ‘논문’ ‘학예’ ‘시가’ ‘소설’로 구성되는데 위의 시는 ‘시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학예’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항목에는 이병기의 「시조에 대하여」나 이승규의 「한시의 개론」과 같은 학술적인 글들이 포함된다. 번역을 창작 항목이 아닌 수업에 관계된 학술로 분류하였다는 것에서 이 시가 수업시간에 번역된 시가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학예’ 항목에는 영어교사였던 박술음의 다음과 같은 글이 속해 있다.

취미가진 벗의게 영시 입문으로 읽을 책을 소개하면 尹東勇太郎저 「英詩ノ味ニ方」. 이것을 워선 읽어 맛을 드린 후 Tennyson의 시중에서 쉬운 것을 택하여 읽으라 테니슨의 시는 비교적 규칙이 정연하여 운율을 알기에도 쉬웁고 Wordsworth와 미국시인 Longfellow의 시도 쉬우니 초학자는 이 3인의 작품을 음미하면 도홀출 맞는다. 제군! 우리도 연구하여 沙翁의 시까지도 우리말로 옮기여 그 생명 흐르는 예술경에서 울고 우서보지 아니하려나? (박술음 32)

위의 글은 영시에 취미가 있으면 초보자는 일본어로 된 이론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 테니슨을 권하는데 그의 시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외에 워즈워드나 롱펠로우를 언급하는데서 학생들의 영미시 편중이 영미 선교사의 영향 뿐 아니라 영어교사의 권유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쉬운 시부터 출발하여 더욱 연구하여서 섹스피어의 ‘생명이 흐르는 예술’의 바다에 빠져보자고 권하고, ‘제군 - 하지 않겠나’와 같은 웅변조의 어투로 영어 번역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를 시도한다. 당시 번역이 외국 문화와 문학을 이해하는 한 통로라는 인식과 함께 교사의 적극적인 번역 장려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교사 박술음은 꾸준하게 외국문학에 관심을 가지는데, 『회문』5호에는 「서정산문가 와싱턴어빙」과 같은 미국의 소설가인 워싱턴 어빙에 대해서도 글을 실었으며, 『회문』7호에는 스티븐슨의 「이상국(El Dorado)」을 번역한 글을 실었는데 이는 이기인이 스티븐슨의 시를 수업시간에 번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회문』10호에는 「소위 보조동사의 검토」와 같은

글을 영어로 게재하기도 한다.

『일광』과 『휘문』의 예에서 당시 학생 번역에 교사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외국인 교사가 있었던 학교에 번역시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¹²⁾였고, 한국인 영어교사가 있는 경우 교사가 번역에 관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면 번역시는 교사의 영향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학생들에게 번역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기는 했지만 번역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교사가 먼저 번역에 관심을 보였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번역은 학생들이 스스로 하였고 때문에 번역에서는 번역자 개인의 특징이 드러난다는데 학생 번역시의 특징이 있다. 결국 학생은 학교 제도와 교사의 영향권 아래 있기는 하지만 다음 장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당시 청년들의 문화가 번역되기도 한다는 것에 주목해 본다.

2.2 번역행위 주체의 의도

번역에 중요한 것은 번역자의 의도이다. 이미 번역되었던 작품을 다시 번역하거나, 번역되지 않은 작품을 처음으로 번역할 때도 번역자들의 개인적·보편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예로 든다면 이화여전의 교지 『이화』1호는 롱펠로우의 「The Rainy Day」를 두 명이 번역하여 실었는데 김한숙은 「비오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장기선은 「구진비」라는 제목으로 각각 번역하였다.

12) 당시 이화여전은 유일하게 문학강좌가 개설된 여학교였으며 한국과 외국인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테니스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외우도록 장려(테레사현 95-96)하였다. 이화여전에는 음악과장인 Miss Young, 보육과장인 Miss Van Fleet, 외국인 교수로 Miss Traxel, Miss Stover, Miss Dameron 등 5명과, 강사 Miss Loucks, Miss Church, Miss Baker, Miss Morris, Mrs. Maynor 등 5(『이화』1호 187-188) 외국인 교사가 많은 편이었으며 한국인 교사였던 이태준의 문장수업이나 일석 이희승의 문학시간에도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으며, ‘미스 트락설의 지도하에 영어 연극’을 연습한다(『이화』1호 185)는 보고로 보아 영어 연극도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화여전이 특히 영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화여전의 교지에는 매호 마다 번역시가 실린다.

The day is cold, and dark, and dreary; / It rains, and the wind is never weary; / The vine still clings to the moldering wall, / But at every gust the dead leaves fall, / And the day is dark and dreary.

- Henry Wadsworth Longfellow, 「The Rainy Day」

음산한날새 / 비오고 바람부나 / 썩어가는 넝쿨에 매어달렸네 / 그렇나 마침내 모진바람불어 / 그윽떨어지고 / 침침한날새 더음산하이.(김한숙 57)

1. 저르는그날은 추웁고 어둡침침한데 / 비는나리고 바람은 끝일줄을 모르네 / 마른포도넝쿨은 아직도 쓸어져가는담밑에 매달려있는데 / 광풍은불어 불어 가없는잎새를 떨어트리려네 / 저르는 그날은어둡침침한데.(장기선 56)

위의 두 시는 전문을 다 번역하였는데 같은 시가 다른 번역자에 의해 56페이지와 57페이지에 동시에 실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수업 중에 이루어진 번역에서 두 편을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비오는 날’보다는 ‘구진비’가 더 무거운 느낌을 갖기 때문에 제목부터 번역자의 특성을 보여준다. 김한숙은 간결하게, 장기선은 좀 더 길고 장중한 문체로 의역에 가깝게 번역하였는데 장기선의 번역은 ‘포도’ ‘가없는’ 같이 임의적 단어의 첨가로 인해 시가 더 길어졌다. 두 시를 비교해보면 ‘음산함 - 어둡침침함’ ‘썩어져가는 넝쿨 - 마른 포도 넝쿨’ ‘모진 바람 - 광풍’ ‘잎새 - 가없는 잎새’ ‘침침한 - 저르는’과 같은 단어와 이미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두 번역자가 시를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즉 다음 장에서 살펴보듯이 교사가 번역을 장려하였어도 번역하는 이의 경험이나 성격이 번역의 차이로, 청년기의 보편적 인식이 번역문의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1 청년기적 낭만주의와 번역

번역된 시를 시인별로 구분해 보면 1920년대와 30년대 타고르를 제외하고는 거의 겹쳐지지 않는데, 1920년대는 하이네 · 괴테 · 타고르 · 드롬골 · 테니스 · 블레이크 · 스티븐슨 등의 시인이 번역되었으며 1930년대는 존 폴즈워드 · 블레이크 · 휘트먼 · 아랄콘 · 보들레르 · 바이런 · 테니스 · 타고르 · 워즈워드 · 존 맥크레 · 폴 제랄디 · 제라드 맨리 홉킨스 · 룽펠로우 · 조세프 캠벨 · 크리스

티나 로제티·브라우닝·존 메이스필드·Rose Hartwick Thorpe 등이 번역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 시인 11명, 프랑스 시인 3명, 미국 시인 2명, 독일 시인 2명, 인도·캐나다·스페인 시인은 1명씩으로 총 8개의 국가로 나누어지며, 인도·영국·아일랜드·미국·캐나다를 영어권이라는 한 문화권으로 묶는다면 영미권의 시인이 가장 많다. 학생들의 관심이 서정적 낭만주의 경향의 영미권 작가들에 치중되어 있었다.

낭만주의에 경도된 현상은 학생 청년들의 낭만기적인 특성으로도 해석되는데, 번역자들은 십대 후반과 이십대 중후반까지의 청년들로서 낭만적 경향의 외국문학을 즐겨 읽었으며 고독이나 죽음, 슬픔, 사랑, 순수, 향수와 같은 서정적 정서의 시들을 주로 번역하였다. 이는 당시 학생들의 창작시에서도 발견되는 특성으로서 가을이나 봄과 같은 계절에 대한 단상과 감상, 비가 오는 밤이나 눈이 오는 밤, 친구, 죽음과 같은 서정적 소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위즈워스의 「닐곶오늬」를 번역하고 나서 ‘사죽’이라고 밝힌 다음과 후기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엿보인다.

이 시 1편에 감음(感泣)된바되어 참월(僭越)의 것이나 느낀 그대로 고이
 움긴셈이다. 윌즈워-드의 순수(純醇)한 동심의 바지롭음에 내소리없이 울
 었노라. 사를 초월한 아리따운 녀은 이승과 저승을 거침없이 거닐지 않는
 가. (김섭 53)

죽음은 슬프지 않는 것이며 순수한 동심에 소리 없이 울었다는 다소 낭만적인 감상을 적는데 이는 청년기의 역사 혹은 인생에 대한 ‘정서의 낭만주의’ 즉 청년기의 감상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종의 ‘감미로운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김억은 ‘스윗·쏘로우’를 “괴롭고도 설운 즐거움입니다. 심령의 속삭임이 리듬이라는 비를 받아, 곱게 핀 애달픈 많은 꽃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배암에 물리운 죽으려도 죽을 수 없는 개구리의 심정과 같은 시인의 심정에는 무엇이라 말 할 수 없는 Sweet Sorrow가 있습니다.”(464)라고 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이루어질 수 없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에 관한 연애시 번역에서도 드러난다.

연애시는 주로 1930년대에 번역되었는데 이들의 자유연애는 “근대적 주제”

(해결 280-281)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자유연애는 저마다 무한히 특수화된 개인으로서의 두 인격 사이에 애정이 싹트는 데서 시작된, 특수적인 개인의 독자성이 스스로 자기 나름의 요구를 앞세운다는 점에서 근대 세계를 지배하는 주관적 원리와 연관성을 갖는다. 1910-20년대 조선 문학에서 사랑은 근대적인 이념을 표현하는 중요한 양식이었다. 사랑은 사적인 차원을 넘어 정치·경제·문화적인 산물로서 사회의 각 부분과 역사적인 관계를 맺는데, “근대 전환기에 봉건적인 관습과 제도에 저항하고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표현 양식으로서 사랑과 자유와 연애 그리고 성의 문제가 부각”(심선옥 39-40)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근대 청년들은 자유연애를 공개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지향했던 것이다.

연애시 가운데서도 주목되는 것은 「이낙아든」, 「도롱의 새와 자유의 새」, 「오늘 저녁에 모종이 울려서는 안된다」, 「마지막 말타기」와 같은 ‘연애 소설과 같은 이야기시’들로서 사랑의 결실과 기쁨보다는 사랑을 위한 헌신과 희생, 사랑의 희열보다는 슬픔, 고통을 수반한 사랑이 주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도롱의 새와 자유의 새」(『백합화』3호)는 새장에 있는 새와 숲에 있는 새가 서로 사랑하지만 함께 할 수 없음을 슬퍼하는,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이 주제로서 이는 당시 모던 보이와 모던 걸들의 자유연애와 사랑에 대한 낭만적 환상을 보여준다. 한표옥은 로버트 브라우닝의 「The Last Ride Together」를 번역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다는데 여기에도 사랑하기의 감미로운 고통이 드러난다.

이는 「브라우닝」의 연애시 중에 서도 가장 훌륭한 시다. 한 사람의 남자가 한 사람의 여성을 마음으로 사랑하였다.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사랑을 바꿀수가 없었다. 슬은 일이다. 여자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 남자는 곧 이 저버렸다. 그리하여 그 이별로 두 사람이 말이 나같이 타자고 한다. 이 최후의 願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말을 달리기 시작한다. 마음은 기쁨에 넘쳐 뛰놀고 생각은 제멋대로 꼬리를 편다.(91)

한표옥은 “이루어질 수 없는 연인들의 마지막 말타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랑이 충족되지 않는 이 시를 “연애시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시”라고 평가한다. 슬픈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품은 근대청년을 볼 수 있다.

당시 신여성들도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인식이 번역시의 선택에서도 드러난다. 신진순은 미국 시인 Rose Hartwick Thorpe가 쓴 「Curfew Must Not Ring Tonight」를 「오늘 저녁 暮鐘이 울려서는 안된다」(『배화』 9호)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다. 정치범일 듯싶은 남성 ‘씨스톤’은 저녁종이 울리면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연인인 ‘베씨’는 종을 치는 노인이 귀가 어둡다는 것을 알고, 종을 칠 때 추를 자기의 손으로 막아 손이 짓이겨지는 아픔을 감수하며 종소리가 울리지 않게 한다. 그리고 사형은 미루어진다. 이에서 끝나지 않고 권력자인 ‘크롬웰’을 만나 법적으로 사면을 받는다는, 여성의 적극적이면서도 헌신적인 사랑이 주제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랑을 쟁취하는 당시 신여성들의 적극적인 사랑 인식을 보여준다.

2.2.2.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자각과 계몽주의

시 번역뿐 아니라 논설에서도 테니슨이나 로버트 브라우닝, 그리고 로제티나 스윈번 같은 영미 낭만주의 시인에 대한 글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데, 연회전문의 곽용오는 위즈워드를 “명상적 성격자로 심원한 상상력과 직세(織細)한 표현력을 소유한 시인이다. 그의 자연에 대한 예민한 관찰력은 장엄한 자연계의 무궁한 미와 진리를 파악하여 인생을 교훈하므로 일생을 바친 자연시인”(83)으로 본다. 연회전문의 최활은 테니슨과 브라우닝을 “시인이라기 보담 오히려 사색가라고 함이 온당하엄즉한 과학적 사상의 제창자”로, 테니슨을 “민중의 비애나 희열의 대언자”로 해석하고, 로버트 브라우닝은 “깊은 사색이라는 무거운 구속 때문에 오히려 창달(暢達)한 맛을 제물로 드리고 끝까지 개성적 괴벽을 발휘”한 시인으로, 단테 가브리엘 로셋티(Dante Gabriel Rossetti)는 “소위 정신적과 물질적의 양면의 묘출에 성공한 대 시인”(22)이라는 평가를 한다. 학생들의 영미 시인에 대한 논설은 당시 영문학사 서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시인들의 ‘명상적’인 면과 ‘정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결론을 내린다는 공통적 인식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과 연관되는 지점이 타고르의 시 번역이다.

텍스트 가운데 여러 교지에 다양한 시가 게재된 시인은 타고르로서 『휘문』 1호, 『휘문』 2호, 『계우』 10호, 『백합화』 3호, 『경신』 1호 등 각기 다른 교지에 실

렸는데, 1920년대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타고르에게 관심을 보였다. 1905년 외교권 박탈과 이어 1907년 고종의 강제 폐위 이후 본격적인 식민지 탄압이 시작되던 시기에 ‘조선이 동방의 불빛이 될 것’이라는 시 「동방의 불빛」¹³⁾은 많은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힘을 주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하였을 것이다. 또한 같은 식민지의 시인으로서 여러 번 일본과 중국 방문을 통해서 “서양에 대한 동양사상의 우월성과 여러 식민지 정책들 중 특히 일본의 정책을 비판”(알록 꾸마르 로이 59)했기 때문에 타고르의 작품을 번역한다는 것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간접적인 저항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었고 이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일본에서 타고르를 만난 진학문에 의해 『원정』의 시 몇 편이 번역되기 시작한 것이 1923년 이전이고, 교지 소재의 번역시 가운데 3편은 타고르가 「동방의 불빛」을 조선에 주기 전에 먼저 번역되었다는 사실에서, 타고르가 정치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서구에서는 타고르의 시가 1910년부터 영역 되었고, 조선 번역가들은 영어로 된 시들만 번역했던 까닭에 타고르를 “신비적 시인”(알록 꾸마르 로이 74)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타고르의 시 가운데 사랑과 순수한 동심을 주제로 한 명상적인 시들을 주로 번역하였던 것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지식인들 가운데 만연했던 계몽주의와 연결되는데 명상은 교훈적 계몽주의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계몽주의는 자신들이 조선의 현대화 과정에 선택된 선구자라는 인식으로 표출된다. 이 같은 인식에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낭만적 인식, 청년이라는 단어로 발견한 정체성, 자신들을 역사변혁기의 주체로 특권화하는 사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다리놓난 노인」은 기성문단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교지에서만 발견되는 시이다. 모든 난관을 헤치고 강을 건너 온 노인

13) 1929년 타고르가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동아일보』의 한 기자가 한국 방문을 요청하였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타고르가 대신 준 시가 경신학교의 교지 『경신』1호(경신학교 동창회, 1929, 4)에 「朝鮮에부탁」이라는 원문 그대로 실린다. 번역시 아래는 ‘동아일보에 轉載’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미 『동아일보』에 발표되었던 것을 그대로 옮겨 실었다는 뜻이다. 전제된 것을 실었으므로 역자 역시 밝혀져 있지 않다. ‘인도 시성 타고아웅께서 조선에 준 시’라는 설명 아래에는 번역시와 영문으로 된 원문이 있다. 당시 『동아일보』의 제목도 「朝鮮에부탁」으로 되어있었고 나중에 주요한은 타고르의 이 시의 제목을 「동방의 등불」로 번역한다.

이 뒤돌아서 다리를 놓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길을 가던 사람이 당신은 강을 건너왔는데 왜 다리를 놓느냐고 묻자 노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오늘에 네가온이길노 / 날짜라오는 한소년잇스니 / 이길을 반다시 지낼터
인데 / 이강이 내게 장애가되였거니 / 저갓든 유망한청년세도위험할지 뉘
알야 / 칩고도어두운이저녁에 / 이곳에 당도할지도 모르니 / 친구여 걱정
마시오 / 나는 그 소년을 위하여 이다리를 놓습니다.」 (無名氏草譯 154)

즉 노인은 자신의 뒤에 오는 ‘유망한 청년’을 위하여 다리를 놓는다는 내용으로 연설자들의 연설문에서도 종종 인용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리가 되겠다는 의미를 정치적으로 역설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며, 교지에 실린 이유 역시 개척자로서의 자긍심, 자신의 희생이 오는 후배들에게 다리와 길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시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시 「플랜더-쓰戰地에서」는 전쟁터에서 전사한 화자의 독백이다.

우리는 플랜더-쓰 전지에 누어있다 // 싸움을 계속하라 적군을 향하여 /
힘없는 우리의 손이 던지는 화물을 / 놓히 들어라 네 힘을 다하여 / 죽는
우리와 매끈 그 신의를 직히지 않으면 / 우리는 평안히 쉬지 못하리라.
(天人誌 149)

위 시의 화자는 죽은 자신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이들에게 싸움을 계속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이다. ‘싸움’ ‘화물’ ‘신의’ 같은 선동적인 단어로의 번역은 근대와 현대의 길목에서 있는 청년들에게 역사와 시대에 대한 의무감을 고취시켰을 것이다. 학생들은 실천의식을 강조하는 시들을 통해 자신을 선각자로 구별하고 스스로를 계몽하였으며 이는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려는 낭만적 계몽주의로 이어진다. 이러한 인식은 고난을 극복하고 업적을 이룬 위인에 대한 관심으로도 나타나는데, 중앙고보의 교지만 보더라도 『계우』10호에는 「에이 썬러햄 · 링컨」, 『계우』12호에는 「학생시대를 통하여 본 고급의 위인」이라는 특집으로 간디 · 윌슨 · 무솔리니를, 『계우』13호에는 「위인의 대 감격」이라는 특집 하에 무솔리니 · 링컨 · 나폴레옹 · 소크트랜드 왕 · 페스탈로치 등을 소개하고, 『계우』14호에는 갈릴레

이와 에디슨의 일생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등 위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다. 특히 링컨이 두 번에 걸쳐서 소개되는데서 학생들이 링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링컨에 대한 시 번역도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해석된다.

같은 시가 여러 번 번역된 경우 이 시에 대한 의미가 적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 휘트먼(Walt Whitman)이 링컨 대통령을 추모하여 쓴 네 편의 시중한 편인 「O Captain! My Captain!」은 『연회』8호와 『국학』2호에 각각 다른 번역으로 실렸다. 여기에 추원생의 「깃버해라 선원아 깃버해」를 휘트먼의 같은 시로 본다면 「O Captain! My Captain!」은 세 번 번역된 셈인데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같은 시가 세 번 번역되었다는 것은 번역자 혹은 독자에게 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추원생은 『계우』10호에 8편의 외국시를 중역하였는데 이 가운데 「깃버해라 선원아 깃버해」는 휘트먼의 작품이라고 밝힌 것 외에 원제가 병기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비슷한 제목이 휘트먼의 시 목록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추원생은 보들레르의 「死의깃땀(1절)」도 중역했는데 시의 첫 연이 번역되지 않았다. 이에서 「깃버해라 선원아 깃버해」도 휘트먼의 「O Captain! My Captain!」 마지막 3연을 중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휘트먼의 일역시 시집을 텍스트로 삼은 듯 휘트먼의 다른 시 「그대에게」를 중역한 사실도 이러한 유추를 뒷받침한다.

「깃버해라 선원아 깃버해」는 주요한의 번역 「사공이여, 우리 사공이여」보다 3개월 앞서 번역되었으며 중역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깃버해라! 선원아 - 깃버해 / (죽임에 즈음하여 내靈에 만족하며 이렇게 웨친다) / 우리의 생명은 끝막었다-우리의 생명은 시작되었다 / 오라되, 오란 정유지를 우리느떠난다 / 배는 정돈되었다 - 배는 날뛰다! / 배는 빠르게 도 기슭을싣쳐 멋그러져나간다 / 깃버해라 선원아 - 깃버해!. (추원생 44)

휘트먼의 「O Captain! My Captain!」에서 위의 시 구절이라고 추측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My captain does not answer, his lips are pale and still, / My father does

not feel my arm, he has no pulse nor will, / The ship is anchored safe and sound, its voyage closed and done, / From fearful trip the victor ship comes in with object won; / Exult, O shores, and ring O bells! / But I, with mournful tread, / Walk the deck my Captain lies, / Fallen cold and dead.

— Walt Whitman, 「O Captain! My Captain!」 (밑줄 표시는 필자 강조)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석 된다.

나의 선장님은 대답이 없다. 그의 입술은 창백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 나의 아버지는 내 팔을 느끼지도 못하고 맥박도 의지도 없다. / 배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닻을 내렸고 항해는 끝났고 완료되었다. / 무서운 여행으로부터 승리의 배는 목적을 달성하고 입항하였다. / 기뻐하라, 오 해안들이여, 울어라, 오 종들이여! / 하지만, 난, 슬픔에 찬 걸음으로 / 견노라, 나의 선장님이 차갑게 쓰러져 / 죽어 누워있는 이 갑판 위를. (밑줄 표시는 필자 강조)

현대의 해석과 위의 중역된 시를 비교해 보면 밑줄 그은 부분이 다음과 같이 소재와 어조가 비슷하다.

추원생의 번역	필자의 번역
끝났다, 시작되었다	끝났고 완료되었다
배는 정돈되었다	배는 목적을 달성하고 입항하였다
깃버하라 선원아 깃버해	기뻐하라 오 해안들이여

휘트먼의 시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타국에서 외국의 시인을 소개하고 번역할 때 주로 대표작을 번역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시를 번역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시기는 한국근대시가 서구 및 일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시기에 해당한다. 1906년 이후 한국은 “서구문학을 일본과 중국에서 번역된 작품을 다시 중역”(김용직 외 1988: 6)하여 받아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은 해당국의 문학을 직접

번역하였지만 한국은 2중 3중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고 추원생의 중역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학생 번역시가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번역의 불충실성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 청년들의 낭만적 계몽주의가 링컨의 죽음을 소재로 한 시의 빈번한 번역으로 이어졌다는 데서 번역은 단지 외국의 개념과 사상을 수용하는 지적 행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자각하는 문화적 실천”(최경옥 78)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3. 나오면서

임화는 우리의 근대 문학사를 “서구문학의 수입과 이식의 역사”(임화 832)로 해석한다. 이식성으로 말미암아 근대문학의 전개과정이 ‘쫓아가기’ 형국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온갖 사조와 경향들이 착종되어 어느 것 하나도 성숙을 기하기 어려웠다는 것(하정일 20)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시 번역은 기성 문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면서도 다음과 같은 특이성을 보여준다.

첫째,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의 영향 하에 있었고 교사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번역문이 거의 없는 학교의 예에서 알 수 있으며,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학교에서도 교사의 출신 국가와 교사들의 성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번역시의 대부분이 영미시였다는 결과로 나타난다.

둘째, 학생들은 교사의 영향으로 번역에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번역문의 선택에서는 자율적인 학생들의 문화와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기성문단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시인들의 시 번역이 있었다는 것, 십대 후반에서 이십대 중반 청년의 낭만기적 특성인 슬픈 사랑에 대한 동경을 보인다는 것, 그리고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정체성 찾기에서 연유되는 계몽주의와 위인에 대한 관심이 번역시의 선택으로 드러난다는 것 등이다. 이들의 낭만성은 1920년대 기성문단의 병약한 낭만주의와 구별되는 건강함이라는 차별성을 가지는데, 자신들에게 조선 개조의 역할이 부여되었다는 사명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번역 작업이 갖는 의의는, 교지의 번역자들은 대부분이 학생들이

였기 때문에 그들은 학습자이자 작가이자 독자라는데 있다. 이들은 번역 행위를 통해 처음 외국문학을 접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번역 텍스트를 생산해 내는 행위는 단순히 외국어 학습 기능을 위한 과제 수행의 의미 이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 행위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당대 근대문학 혹은 외국문학의 상과 개념을 세워 가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당시 새로운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여러 차원의 고민이 학생들의 번역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부록>

<연구대상 텍스트 목록 - 번역시>

교지명	발행년도	편수	제목	원작자	역자	발행기관
『배재』1호	1922, 11	1편	새봄	하이네	金昌洙 역	배재고보학생 청년회
『배재』5호	1924	3편	마음업는처녀	쎬테	香園	
			첫 월한	쎬테	香園	
			애인의 것	쎬테	香園	
『배재』11호	1928, 3	0편				휘문고보 문 우회
『휘문』1호	1923, 1	1편	씨텐젤리	밝히지 않음	정지용 역	
『휘문』2호	1924, 6	3편	묘지에서	밝히지 않음	취하선생 略譯	
			When and why	타르르	김창진 역	
			사랑하는 사람에게	밝히지 않음	이석희 역	
『휘문』3호	1925, 12	0편				
『휘문』4호	1927, 1	1편	내침대는조고만배다	영국Stevenson작	四乙 이기인 역	
『휘문』5-7호	1928, 3 -1929, 12	0편				
『휘문』8호	1930, 11	5편	봄에게	블레이크	정지용선생 역	
			초밤별에게	블레이크	정지용선생 역	
			소곡	블레이크	정지용선생 역	
			소곡	블레이크	정지용선생 역	
			봄	블레이크	정지용선생 역	
『휘문』9-10호	1931, 12 -1933, 2	0편				
『휘문』11호	1933, 12	1편	바다그리워	John Masefield	종호 역	
『휘문』15호	1937, 12	0편				
『광성』2, 8, 12, 13호	1925, 4 -1939, 2	0편				광성고등보통 학교학우회
『연회』6호	1926, 5	1편	밝히지 않음	썬렉	밝히지 않음	연회전문학교 학생회
『연회』8호	1931, 12	2편	사공이여 우리 사공이여	휘트맨 작	주요한 역	
			古柏	테니스 작	金種 역	

『계우』2-3호	1927, 3 -1928, 3	0편				
『계우』10호	1931, 9	9편	깃버해라 선원아	훗트먼	秋原生	중앙고등보통 학교동창회
			깃버해	훗트먼	秋原生	
			그대에게	훗트먼	秋原生	
			소곡	아랄콘	秋原生	
			死의깃땀(1절)	쇼스렐	秋原生	
			刻銘	윌즈, 위.드	秋原生	
			추억	빠이론	秋原生	
淚(일부)	빠이론	秋原生				
그어느아침꽃밭속 에서	타-고어	秋原生				
널곶오누	위즈워드	五甲 金 燮				
『계우』14호	1934, 7	1편	거리에 나리는비	벨넨	5갑 박성 장	
『일광』1-10 호	1928 -1940	0편				중앙불교전문 학교 교우회
『이화』1호	1929, 2	3편	죽음의 왕	Jogann Wolfgang Von Gaetge	스비호번 역	이화전문학교 학생기독교청 년회
			다리놓난 老人	밝히지 않음	無名氏草 譯	
			이낙·아-든	테니슨	메리 譯	
『이화』2호	1930, 12	1편	기회	센살쓰 원작	유정옥 번 역	
『이화』3호	1931, 3	2편	水仙花	WORDSWORT H	츠스호 역	
			플랜더-쓰戰地에 서	John McCrac	밝히지 않 음	
『이화』5호	1934, 6	4편	나는 가라하네	제라드 맨리 홉 킨즈	김한숙 역	
			비오는 날	퐁엘로- 원작	김한숙 역	
			구진 비	원작 퐁엘로	역 장기선	
			孤獨한 收穫者	위-쓰위.쓰	김금주 역	
『이화』6호	1936, 3	1편	老婦	쥬세르 캠프 작	한충화 역	
『이화』7호	1937, 6	1편	THE SHEPHERD	William Blake	밝히지 않 음	
『백합화』3호	1929, 3	1편	도롱의새와자유 의새	타고아	가을물	경성협성신학 교 학생기독 청년회

『경신』1호	1929, 4	1편	조선에부탁	타고아	밝히지 않음	경신학교 동창회
『배화』1-3호	1929, 5 -1931, 3	0편				배화여자고등학교 보통학교 교우회
『배화』4호	1932, 7	1편	2원론	폴제랄디 작	임정희 역	
『배화』5-8호	1933, 6 -1935, 7	0편				
『배화』9호	1936, 2	1편	오늘저녁 暮鐘이 올려서는 안된다	Rose Hartwick Thorpe	四蓮 신진 순 역	
『배화』 10-13호	1936, 10 -1943, 2	0편				
『연희시온』 4호	1936	3편	五月	로제틱	윤태웅 역	연희전문학교 학생기독청년 회
			誕生日	로제틱	윤태웅 역	
			The Last Ride Together	Robert Brouning	한표욱 역	

참고문헌

(1) 분석 텍스트

- 곽용오 (1931) 「자연 시인 윌스워드 소론」, 『연회』8, 연희전문학교 학생회.
- 김 섭 역 (1931) 「닐곱오너」, 『계우』10, 중앙 고등보통학교동창회.
- 김병원 (1933) 「위인의 대감격」 『계우』13, 중앙고등보통학교 동창회.
- 김한숙 역 (1934) 「비오는 날」, 『이화』5, 이화전문학교 기독교 청년회.
- 리종수 역 (1931) 「일사자리 잇소」, 『신흥』6, 신흥사.
- 無名氏草譯 (1929) 「다리놓난 노인」, 『이화』1, 이화전문학교 기독교 청년회.
- 박술음 (1927) 「영시의 운율」, 『회문』4, 회문고보 문우회.
- 송의수 (1934) 「전기 전설」 『계우』14, 중앙 고등보통학교동창회.
- 신진순 역 (1936) 「오늘 저녁 暮鐘이 울러서는 안된다」, 『배화』9, 배화여자고
등보통학교교우회.
- 영 석 (1935) 「편집여묵」, 『일광』5, 중앙 불교전문학교 교우회.
- 이기인 역 (1927) 「내침대는조고만배다」, 『회문』4 회문고보 문우회.
- 이명섭 (1932) 「태서6호문고」, 『계우』11, 중앙고등보통학교 동창회.
- 李種洙 역 (1935) 「어머니와 아들」, 『신흥』8, 신흥사.
- 이종호 (1933) 「학예부 1년간」, 『회문』11, 회문고보 문우회.
- 장기선 역 (1934) 「구진비」, 『이화』5, 이화전문학교 기독교 청년회.
- 정준모 (1935) 「울곡의산책 : 의정부의 하로」, 『일광』5, 중앙 불교전문학교 교
우회.
- 주요한 역 (1931) 「사공이여, 우리 사공이여」, 『연회』8, 연희전문학교 학생회.
- 스스ㅎ 역 (1931) 「플랜더-쓰戰地에서」, 『이화』3, 이화전문학교 기독교 청년
회.
- 최 활 (1931) 「영시단사적 소고-「빅토리아」朝를 중심으로」, 『연회』8, 연희전
문학교 학생회.
- 추원생 중역 (1931) 「깃버해라 선원아 깃버해」, 『계우』10, 중앙 고등보통학교동
창회.
- 추원생 중역 (1931) 「死의깃뭉(1절)」, 『계우』10, 중앙 고등보통학교동창회.
- 추원생 중역 (1931) 「그대에게」, 『계우』10, 중앙 고등보통학교동창회.

편집부 (1932) 「학생시대를 통하여 본 고금의 위인」, 『계우』12, 중앙고등보통학교 동창회.

한표옥 역 (1936) 「The Last Ride Together」, 『연희시운』4, 연희전문학교 학생기독교청년회.

RMS (1931) 「에이 쓰러햄 · 링컨」, 『계우』10, 중앙 고등보통학교동창회.

(2) 참고문헌

- 김병철 (1975) 『한국 근대 번역문학사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 김병철 (1980) 『한국 근대 서양 문학 이입사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 김병철 (1989) 『한국 근대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 김 익 (1924) 「서문대신에」, 『김익전집』4, 서울: 한국문화사.
- 김용직 외 (1988) 「형성기 한국 근대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 『비교문학』13.
- 김용직 외 (1989) 「1930년대 한국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 『비교문학』14.
- 김육동 (2009) 「번역가로서의 최남선」, 『외국문학연구』35.
- 김윤식 (1973) 「한국문학사와 장르의 문제 - 장르에 대한 몇 가지 가설」, 『국어국문학』61.
- 김준환 (2007) 「1930년대 한국에서의 동시대 영국시 수용」, 『영어 영문학』53(3).
- 김효중 (1984) 「문학작품 번역의 이론과 실제 - 용어의 피테시 번역을 중심으로」, 『한민족 어문학』10.
- 맹문재 (2008) 「1930년대 여자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고찰 - 『배화(培花)』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29.
- 문석우 외 (2004) 『한국근대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 경기: 한국 학술정보.
- 문현미 (2003) 「한국 근대시에서 독일시 접촉과 수용」, 『한국문학 논총』34.
- 부산대학교 인문한국 고전 (2010) 『고전, 고전번역, 문화번역』, 서울: 미다스북스.
- 서은주 (2005) 「1930년대 외국문학 수용의 좌표: 세계/민족, 문학」, 『민족문학사 연구』28.
- 설준규 · 서강목 (1991) 「영미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겨울.
- 심명호 (1977) 「한국현대시의 형성과정에 수용된 미국적인 영향」, 『미국학』1.

- 심선옥 (2002) 「김소월의 문학체험과 시적 영향」, 『한국문학이론과 비평』15.
- 안남일 (2008) 「『우리키』수록 소설 연구」, 『한국학연구』29.
- 알록 꾸마르 로이 (1995) 「타골의 문학사상, 그 한국적 수용」, 『한국문학연구』17.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1,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이상옥 (1993) 「한국 현대시에 미친 영미시의 공과에 대하여」, 『홍익어문』12.
- 이창배 (1968) 「영미 현대시가 한국현대시에 미치는 영향」, 『문교부학술연구보고서』14.
- 임 화 (1940) 「신문학사의 방법」, 『문학의 논리』, 서울: 학예사.
- 장석원 (2008) 「일본유학생 동창회 간행물에 나타난 현실인식 - 발굴자료 『명치대조선유학생동창회보』, 『조대우리동창회지』를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29.
- 전도현 (2008) 「식민지 시대 교지의 준 문예지적 성격에 대한 일고찰 - 중앙불전 학생회지 『룸비니』를 대상으로」, 『한국학 연구』29.
- 정경은 (2009) 「이화여전 교지 『이화』의 외국문학 수용에 관한 고찰」, 『한국학 연구』31.
- 최경옥 (2005)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살림.
- 최남선 (1926) 「조선국민문학으로의 시조」, 『조선문단』, 1926, 5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편 (1973) 『육당 최남선 전집』9, 현암사).
- 최동호 (2008) 「『금강저』에 수록된 김달진의 현대시와 한시」, 『한국학 연구』29.
- 테레사 현, 김혜동 역 (2004) 『번역과 창작』,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하재연 (2009) 「『신흥』과 문예란의 성격과 의의」, 『한국학 연구』31.
- 하정일 (2002) 「프로문학과 식민주의」, 『한국 근대문학연구』3(1).
- 혜 겐, 임석진 옮김 (1994) 『법철학』, 서울: 지식산업사.
- 홍은중 (1967) 「한국문학에 대한 서구 문학의 영향」, 『경희대 문리논총』4.
- 황선희 (1998) 「초기 한국 근대 시단에 나타난 프랑스 사실주의 영향」, 『비교문학』23.

[Abstract]

A Study of Poems Translated by a School Journal Before Korea's 1945 Liberation

Chung, Kyeong-Eun

(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USA)

Before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most of the modernized High Schools and Colleges encouraged students to establish diverse student-governed activities. One of such activity included the publication of school journals in which students were able to publish translated poetry. The following are the quality and significance of translated poetry publication.

Firstly, students were publishing these contents under school authority which predetermined the influence of their instructors. Such influence is present even in a school where translated literature are not being published. However, in schools where translated literature are being published students are not only influenced by the instructors personality but by the traits of the instructor's home country and vast amount of the translated poetry were found in England and America.

Secondly, though student's interest in practice of translation was heavily influenced by school instructors, the self-chosen literature content mirrors the level of culture and quality amongst the students. Their choice of literature materials were those that have not yet been recognized by those in the literary circles at the time. The youth of late tens and early twenties showed traits of romanticism: yearning for sad love story. Moreover, their selection of poetry indicates student effort to discover ones true character and identity in a period of colonialization through enlightenment ideas and by studying the literature written by great names of history.

Lastly, because students were the ones publishing the school journals they were both author and audience. It was the practice of translation that allowed these students to come in contact with foreign culture. Furthermore, it was the practice of translation which influenced students to constitute the phase and concept of both modern literature and foreign literature.

▶ Key Words: school journals, translation, literature in translation, translator, romanticism, England and America poetry

정경은

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 비교문학과 비교문학 이론 전공

rainshoes@hanmail.net

관심분야: 해방 전 교지

논문투고일: 2011년 0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1년 0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1년 03월 11일